2022년 / 12월 5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12월 26일(월) : 기자촌 재개발 기록화 사업 추가 인터뷰
○ 12월 28일(수) : 2022년 사무국 평가회의
○ 12월 30일(금) : 사무국 종무식

■ 연구원 소식

○ 연구원 신입회원 소개

한교수님께서 우리 연구원 새 식구가 되셨습니다. 전임 운영위원인 흐름출판의 한명수 대표 막내 동생분이고 지금 세종시에 살고 계십니다. 변주승 이사의 추천으로 김동식님이 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살고 계십니다. 새 식구 두 분이 연구원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물리적 거리를 지울 수 있는 마음의 연대를 키워가겠습니다.

○ 전주 기자촌 지역 과거 사진, 문서 자료 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자촌지역 재개발에 따른 마을기록화 사업>과 관련해 기자촌 지역과 관련한 근현대 자료를 구합니다.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회원이나 소장자를 알고 계시는 회원께서는 해체되는 마을이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제공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전해드립니다.

■ 역사속의 오늘

녹두꽃 지던 날 - 1894. 12. 28

1894년 갑오년의 겨울은 추웠다. 춥다못해 삭막했다. 특히 호남 땅은 더욱 꽁꽁 얼어붙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난 농민군 몇 만명의 시신이 굳은 땅 속에서 더디 썩어가고 있었다. 척양척왜 제폭구민 보국안민의 기치를 내걸고 한양으로 진군하려던 그들은 우금치 전투에서 몰살당했고 다른 전투에서도 패퇴했다. 패잔 농민군은 관군의 눈을 피해 뿔뿔이 흩어졌다.

녹두장군 전봉준도 그 중의 하나였다. 5척 단구로서 남의 눈에 띌 체형은 아니었지만 그 눈빛만은 눈에 띄게 형형했던 그는 눈앞에서 죽어간 동지들 생각에 가슴을 치면서 살을 에는 듯한 겨울바람을 헤치며 전라도 순창 피노리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곳에는 그와 함께 봉기에 참여했던 믿을만한 부하가 은신 중이었다. 남하하는 길목에 경천이라 불리는 냇물을 건널 때 전봉준은 일순 긴장한다. 언젠가 들은 예언에서 그는 "경천을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천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고 관군의 잠복도 없었다.

그는 무사히 부하를 만난다. 몇 달 전만해도 함께 싸운 동향의 동지. 그는 주막집으로 전봉준을 안내하고 모처럼 구들장을 지고 더운밥을 먹은 녹두장군은 긴장을 풀고 다리를 뻗지만 정작 그가 믿었던 부하는 마음 속이 복잡했다. 이미 틀어진 일, 막대한 현상금과 포상이 내걸린 전봉준을 관군에 넘긴다면 팔자를 고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생사를 같이하며 죽창을 함께 맸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외침에 자신도 공감했던 지도자를 버린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입술을 깨문다. 속으로는 아마 이리 이야기했을 터... '장군 미안치만 나는 살아야겠소.' 그의 이름은 '김경천'이었다.

그는 인근에 사는 전주 감영의 퇴역 장교인 한신현에게 전봉준의 출현을 밀고했고 한신현은 동네 사람들을 동원하여 전봉준을 급습한다. 낌새를 챈 전봉준은 주막 담장을 넘어 도망가려 했지만 장정들이 휘두른 몽둥이에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잡히고 만다. 녹두꽃이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1894년 양력 12월 28일이었다.

전봉준 체포에 공이 큰 한신현은 군수 감투를 썼고, 담장을 넘는 전봉준의 다리를 부러뜨렸던 동네 청년들에게도 두둑한 상금이 내려졌다. 하지만 정작 전봉준을 처음 밀고했던 김경천은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다가 굶어죽었다고 전한다.

1894년 12월 28일 외세에는 허약했으나 안으로는 잔인했던 정부의 손에 의해 녹두꽃이 떨어졌다. 배반의 파랑새가 녹두밭에 앉았고 녹두꽃은 떨어져 숱한 청포장수들이 울면서 흩어졌다. 탐관오리에 대해 저항하여 일어섰던, 수많은 백의의 농민들의 지도자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전봉준은 오늘 다리가 부러진 채 포로가 됐다.

그가 동지들과 기세를 올릴 때 부른 노래들은 오늘 들어도 어색하지 않다.

"갑오(甲午)세 가보세. 을미(乙未)적 을미적 병신(丙申) 되면 못가리."

가야할 때 가지 못하고 을미적거리면 병신밖에는 될 것이 없다는 것은 128년전인 1894년 12월이나 2022년 오늘이나 큰 차이 없어 보인다.